

# 도 국회의의원 9명 “새해 이것만은”

**권성동·염동열**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집중 나서  
**정문헌** 낙후된 지역 여건 개선·예산확보 주력  
**황영철**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 진행에 역점  
**한기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실시설계  
**김진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춘천 유치 목표  
**김기선·이강후** 여주~원주 전철사업 정상 추진 총력  
**이이재** 동해북부선 3차 철도망구축계획 포함

2015년 올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도 출신 국회의원 9명은 올해 의정활동 최대 과제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밝혔다. 올림픽 개최지를 지역구로 하는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올림픽 준비에 올해 의정활동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부처 및 도, 지자체와 함께 올림픽을 통한 지역 관광 및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정문헌 의원은 동서고속화철도 등 낙후된 강원도 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농어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운영과 세정(稅政)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황영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도 요구를 반영하고, 새해 신규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5억원이 확보된 국도 5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을 차질 없이 진

행시키겠다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도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진태 의원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와 강원디자인센터 등을 춘천에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기선, 이강후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여주-원주 전철사업이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밝혔다. 이이재 의원은 동해-삼척 고속도로, 동해항 3단계 확장공사 및 연안침식 문제 해결, 삼척-제진 간 동해북부선을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지역 인프라 구축 무마리를 꼽았다. 또 삼척 원전주민투표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등 경제 양극화와 저성장, 빈부격차 등 시장경제 대안 및 지속 가능 발전정책 마련에 힘쓰는 계획이다. 서울=홍현표기자

**공공공사 발주 증가 건설채감경기 회복세**  
 지난해 말 건설기업의 채감경기가 5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기업경기신수지수(CBSI)는 전월보다 21.3포인트 상승한 91.7로 집계됐다. 4대강 사업 영향 등으로 공공공사 발주가 급증한 2009년 9월 96.1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하위영기자** fa.w4939@knews.co.kr

CBSI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는 건설채감경기 회복세가 70.4까지 떨어졌지만 한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국회 처리에 대한 기대감과 연말 공공공사 발주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신설 6곳 중 진척도 가장 빨라... 2017년 완공 가속도

## 경기장 건설현장을 가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3번의 도전 끝에 성공한 유적 과정만큼이나 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역경과 맞서고 있다.

2015년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힘찬 발걸음을 이어간다. 강원도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숨결은 올해 가장 속가 빠르게 터져 나온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졌던 경기장 사업비 감액, 개·폐막식장 위치 변경, 일부 경기장 분산개최 논란은 지난 연말 정리됐다. 일부 불씨는 남아있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한 강원도민들의 목소리는 ‘논란의 완전 종식과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모아지고 있다. 개최도시인 강원도의 정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도 지난 연말 ‘분산개최는 없다’는 한목소리를 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전 국민의 염원에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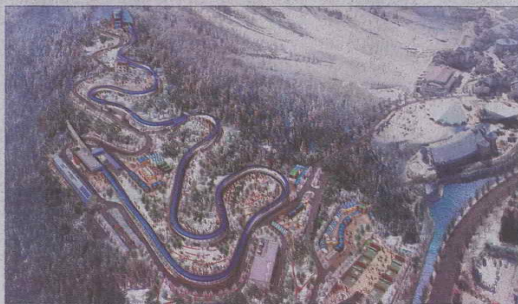
올미년 2015년에는 성공 개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경기장 건설이 본격도에 들어섰다. 2012년에 198억원, 2013년 678억원, 2014년 1,333억원이었던 8개의 신설·보완경기장 사업비는 올해 3,205억원이 투입된다. 경기장 총사업비 6,993억원의 46%가 올해 투입되는 것이다.

**평창 슬라이딩센터** 지난해 12월22일 오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알펜시아 리조트 슬라이딩센터 신축공사장. 약하게 눈발이 내리는 비탈면 도로를 통해 올라간 현장에서는 포클레인이 통탄한 기계를 내려 40~50cm 두께의 언 표토를 걷어내고 부드러운 흙을 퍼 펌프트럭에 옮겨 싣고 있었다. 흙을 실은 펌프트럭들은 성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피니시 하우스 설치예정지를 실 새 없이 오가며 흙을 쏟아부었다. 현장의 분위기는 동강군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다. ■17번째 슬라이딩 트랙 보유국= 지난해 3월 착공한 슬라이딩센터는 17만7,000㎡ 면적에 총 1,22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며 현재 270억원이 투입돼 12.5%의 공정을 기록하고 있다. 메인 스타트하우스가 지어질 5부능선 위쪽은 인허가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까지 발목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공정은 썰매가 달릴 트랙 설치공사이며 스타트하우스 등 건물 신축이 부대공사로 메인 스타트하우스를 포함해 주니어 스타트하우스, 유스 스타트하우스 등 4개의 스타트하우스

공정률 12.5% 썰매 트랙 바닥면 작업 진행 중 2016년 말까지 국제인증 완료 프레대회 개최 1만1천명 수용 규모 올림픽 후 활용계획 고민

가 설치되고 투어리스트 스타트 지점도 마련된다. 현재 피니시 하우스가 들어설 위치의 토공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스타트하우스에는 봅슬레이, 루지 등 썰매가 달릴 트랙의 바닥면이 냉동과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슬라이딩센터가 문을 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7번째로 슬라이딩 트랙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슬라이딩센터 조성에는 국가가 921억원, 강원도가 307억원을 부담하는 등 1,228억원이 투입된다. 경기시설 트랙 1,857m와 실내 아이스 스타트훈련장 161m 등 올림픽 개최 해인 ‘2018년’을 뜻하는 2,018m 길이로 세워지며 1만1,000명을 수용하게 된다. ■향후 활용계획 고민= 최고 폭대기의 스타트하우스가 완

공되며 스키점프도 높이보다 더 높아진다. 올림픽 기간 이곳에서는 썰매 종목인 봅슬레이와 루지, 스킨레이팅 경기가 치러진다. 국제경기연맹(FIBT, FIL) 및 IOC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슬라이딩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국내 선수 육성 및 훈련장 등을 감안해 2016년 말까지는 국제인증을 완료해 프레대회를 개최하고 2017년 말까지 최종 완공을 예정이다. 슬라이딩센터를 예정된 공기 안에 완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 이후 최종적으로 부여되는 국제인증은 10회 정도의 주요 협의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국제연맹 주관으로 개최되는 ‘슬라이딩센터 트랙 설계 컨트론회’에 참석, 기본 설계 전반에 대해 먼저 인증받고 향후 시공 과정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신설되는 6개의 경기장 중 슬라이딩센터는 공사 진척도가 가장 빠른 상태다. 평창조직위, 강원도 등은 현재 동계올림픽 이후 슬라이딩센터 활용계획을 고민 중에 있다. 평창=정익기·이규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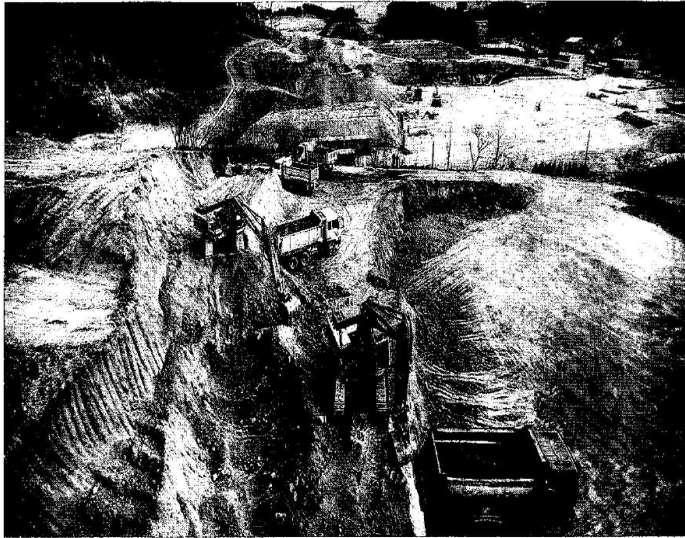


◇썰매종목이 치러질 슬라이딩센터 조감도.



◇슬라이딩센터 공사 모습.

# 쇼트트랙 경기장 공정률 6% ... 활강 경기장 벌목도 못 끝내



◇강릉 종합운동장 인근에 터파기 공사 중인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강릉=권태명기자 ◇정선군 북평면 속임리 가리왕산 중봉 일파인스키 활강 경기장 조성공사 현장.

정선=김영석기자

**강릉 빙상경기장** 연일 계속되던 한파가 한풀 꺾인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강릉 스포츠콤플렉스가 들어설 부지에서는 굴삭기 3대가 한창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이스하키II 경기장이 지어질 가톨릭관동대 체육관에서도 기초 활근 공사를 하기 위해 인부들이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고 있었다. 아직은 두 곳 모두 제 모습을 갖추진 않았지만 3년 후 이곳에서는 동계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빙상경기가 펼쳐진다.

## / 평창올림픽 경기장 건설현장을 가다 /

**정선 중봉 활강 경기장** 정선 알파인 활강경기장은 가리왕산 중봉 정상부에서 총 길이 2,648m의 슬로프로 만들어진다. 당초 여자 경기 코스에 따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사설비 절감과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남자 활강코스에서 스타트 지점만 변경해 남녀 선수 모두가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부지는 259만1,182㎡에서 183만7,291㎡로 크게 줄어들었다.

■공정을 대부분 낮아=동계올림픽 기간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연면적 3만2,184㎡, 1만2,000석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361억원이다. 이곳에서는 지하층 터파기 및 철·설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6%다. 2016년 11월 경기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개설계가 추진 중인 가운데 토목공사가 돌입했다. 연면적 3만9,870㎡, 8,000석 규모의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5개 경기장 대부분 공정률 낮아

시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률은 6%다. 기존의 강릉 실내종합경기장을 보완해 건설되는 컬링 경기장은 연면적 1만7,213㎡, 3,500석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94억원이다. 내년 10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2015년 6월까지의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시설 철거 결정=강릉 빙상 경기장의 최대 과제는 사후 활용방안이다. 현재 빙상경기장 5개 중 피겨·쇼트트랙 경기장과 아이스하키II 경기장, 컬링 경기장을 제외하고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아이스하키I

경기장은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질 것이고 대화가 끝난 후 철거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월경득 원주시장은 지난해 11월 23일 "도를 직접 방문해 재해제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했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관련하여는 12월 15일 도의회에서 구제안 의원이 "폐기 후 철거로 일체 중인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출전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경기장 폐지 문제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올림픽 이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직결돼 있다. 결국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이 같은 논란을 없애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강릉=임태희기자



◇정선 중봉 활강 경기장 조망도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내부 조망도(사선 위부터).

■공정을 1% 불과=일주일 사이 2-3차례는 이 오면서 지난해 12월 22일 중봉을 오르는 임도에는 20여cm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다. 차량으로는 도저히 이동이 불가능해 작업 현장을 따라 걸어 올라간 길에서 멀리 산 정상 활강 경기장 스타트 지점부터 벌목한 지점이 눈에 들어왔다. 현장 부근에 가서 보니 발목까지 빠지는 눈 사이를 헤집고 광음을 내는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연신 나무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3년 뒤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알파인 활강경기가 치러지는 정선

다. 전체 289만8,790㎡에 이르는 흙깎기와 흙쌓기 공정은 2만2,099㎡에 그치며 아직 1%의 공정률에 불과하다. 교목 이식 등 조경공사 역시 6%에 그치고 있다.

■월드컵대회 먼저 치러야=정선 알파인 활강경기장에 투자되는 총 공사비가 1,09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421억원이라고 하니 투입금액 대비 공정률은 38%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토지보상비와 설계비용 등이 포함됐다. 경기장이 완공되면 전체 슬로프의 평균 경사도는 31도로 서

군 북평면 속임리 가리왕산 중봉 초입이다. 사후 관광자원화 활용 필요

관할할 수 있는 임시 관할권도 시달린다. 이 중 6,000억은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철거될 예정이다. 정선 활강 경기장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오는 2016년 2월에 계획된 예정인 '남자활강 월드컵 대회'와 2017년 예정된 '여자활강 월드컵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포올림픽 개최 후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도 과제로 남아있다.

고종일 정선군보안협력회장은 "올림픽 유치는 지역발전의 토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인데 만큼 최후 관광자원화 시설도 활용돼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김영석기자

관할권도 시달린다. 이 중 6,000억은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철거될 예정이다. 정선 활강 경기장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오는 2016년 2월에 계획된 예정인 '남자활강 월드컵 대회'와 2017년 예정된 '여자활강 월드컵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포올림픽 개최 후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도 과제로 남아있다.

고종일 정선군보안협력회장은 "올림픽 유치는 지역발전의 토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인데 만큼 최후 관광자원화 시설도 활용돼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김영석기자

# 원주~제천 복선전철 공기지연 우려

〈제4공구〉

## ■ 동부건설 법정관리 파장

전국 90곳 공공공사 차질

2000여개 협력업체 타격

하이원워터월드 신축

1075억 계약도 수정 불가피

### ▶ 관련기사 8면

강원연고 대기업인 동부그룹의 주력기업 동부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를 신청, 현재 진행중인 각종 공사의 차질은 물론 협력업체 및 중소하도급 건설사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등 파

장이 일고 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의 동부건설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의 자금지원 협상 결렬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현재 상태로는 올해 단기가 되는 1370억원의 회사채를 상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기업회생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시면심사를 통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동부건설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부채를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도로·철도 등 공공부문 공사 현장 90곳의 공사차질은 물론 2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의 경우 동부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 건설공사(1033억3100만원)의 80%(826억6500만원)의 지분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지난 해 10월말 공정률은 40% 수준이지만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기지연 등이 우려된다.

강원랜드 역시 동부건설콘서트시업과 지난 해 6월 정선 하이원

리조트 일원에 물놀이 시설 등을 갖춘 하이원워터월드 신축공사 계약(1075억 9400만원)을 체결했으나 당장 올해말까지 물놀이공원과 아쿠아리움, 스노 등의 설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 72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걸린 2만3000가구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법정관리로 공사가 지연되면 분양자들의 입주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고 준공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 연고 대기업인 동부그룹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채권단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동기 건설협회 도회장은 "동부건설이 도내지역에서 맡아하는 공사는 많지 않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에 하도급사의 경우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줄도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만 이번 사태가 도연고 대기업인 동부그룹 전반에 경영악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 회생 '가시밭길' 계열사에 부실전이되나

## ■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채무 6785억원

산업은행 자금지원 난색

이달 회생절차 여부 결정

### ▶ 관련기사 2면

동부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 금융기관의 피해 규모는 물론 동부그룹 다른 계열사로 부실이 전이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채권은행들은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총당금 직접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법정관리가 워크아웃보다 유연하지 않고 오래 걸리는 만큼 동부건설 정상화의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채무 3606억·産銀 총당금 1000억 발생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의 부채는 금융채무 3606억원, 상거래채무 3179억원으로 총 6785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는 협약채권이 1830억원, 적용받지 않는 비협약채권은 1776억원으로 나타났다.

협약채권 가운데는 동부화재의 신주 인수권부사채(BW) 127억원, 동부생명의 공모사채 200억원 및 BW 87억원 등 동부그룹 계열 금융사가 총 414억 원 을 보유했다.

비협약채권에는 회사채 및 자산유동

화대출(ABL) 등 시장성 자금조달분이 157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밖에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등의 비금융권 기관 대출금이 포함됐다.

동부건설은 투자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1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비협약채권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가진 채권 규모는 협약채권 570억원, 비협약채권 838억원 등 1408억원으로, 전체 금융채무의 40%에 달한다.

산업은행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약 1000억 원을 총당금으로 적법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협약채권역 규모도 946억원에 달해 은행권의 총당금 직접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채권단 추가지원 난색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동부건설의 조속한 정상화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달 31일 동부건설이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은 1개월 안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무구조와 회생가능성에 관한 조사보고를 거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경우 본격적인 회생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채권단이 동부건설에 대한 실사를 마친 결과, 존속가치가 2조4000억원으로 청산가치(1조8000억원)보다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실사보고서는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가정할 때 동부건설 회생에 필요한 자금액을 1700억원, 가장 나쁜 전망을 가정할 때 필요 자금액을 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채권단은 동부건설에 10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향후 5년 동안 소요될 자금의 50% 이상을 계열사로 지원할 경우 회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상황이었다.

동부건설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채권단도 지원을 거부하고 결국 정관리 신청에까지 이르렀다.

## 군, 20개 조기 발주

도로분야 비중 최고

올해 예산액 829억원

시행 규모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부에 따르면 2015년도 행정안전부 발주 건설분야 사업 규모는 8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로 분야가 576억 8299만원, 도로분야 비중이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도로분야 비중이 57%인 829억원, 2015년도 예산액 대비 69.6%로 가장 높았다.

# 공영성 건설 규모 400억대



동부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동부건설이 건설중인 춘천 서상리 터널공사 현장. 서영

대해서는 오는 3월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5월 영농 개시에 준공할 계획이다.

회생에 관해서는 '개혁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자체 활동 역량 강화'를 운영을 통해 안전 점검과 사업 조기 추진, 신속한 선진형 등에 나서 지역 강기를 활성화하는 데 함께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정대국 lawtopia@kado.net

## 【 2015.01.02(금) 건설경제 】

### 지난해 하반기 건설업 평균 임금 상반기보다 1.79% 상승

지난해 하반기 건설근로자 임금이 평균 1.79% 상승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17개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전반기에 비해 1.79%, 전년대비 5.26% 상승한 15만859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 직종은 전반기 대비 1.77% 올랐다. 광전자 1.97%, 문화재 3.01%, 기타직종은 1.94% 상승했으나 원자력은 1.43% 하락했다.

건설협회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고된 작업 여건에 따른 취업 기회와 기능 인력의 고령화, 인력 품귀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348개 정비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1일 발표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란 공사 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변화된 설계 및 시방서(공사 지침서)기준을 반영하고 일반화된 공법이지만 공사비 산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을 발굴해 매년 상·하반기(7,12월) 두 차례에 걸쳐 표준품셈을 손질해 발표한다.

올해는 전체 4495개 품셈 가운데 총 348개 항목(상반기 54개, 하반기 294개)을 정비했다.

토목분야에선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 및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을,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펌프

(400kg/cm)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새로 반영했다. 또 현장타설 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2000mm에서 2000~3000mm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하고,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했다.

건축분야에선 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콘크리트, 철재 등 다양한 도장면의 특성을 반영해 도장 후 바탕도르기 작업을 분리했다. 기계설비 분야에서는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현장 제작·설치에서 제품 완성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태형기자 kth@

## 건설기업 체감경기 회복세 뚜렷

건산연 집계 지난달 CBSI '91.7'  
2009년 9월 이후 최고치 기록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세가 완연하다.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5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홍수)은 1일 2014년 12월 CBSI가 전월 대비 21.3p 상승한 9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9월 96.1 이후 5년3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때는 4대강 사업 등 공공공사 발주가 급증했던 시기다. CBSI는 경기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건설사가 많으면 100을 넘어서고 나빠졌다고 응답한 건설사가 많으면 100에 미치지 못한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에 9·1대책의 지수 견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면서 크게 하락했으나, 12월 들어 연말에 공공공사 발주가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과 부동산 3법 국회통과 영향으로 크게 반등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12월 중순 이후 부동산 3법의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월말 국회에서 동 법안들이 통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아직 기준선 100에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못 미친 90선 초반이므로 체감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체 규모별 지수도 모두 상승한 가운데 특히 중견업체와 중소기업 지수의 상승 폭이 컸다.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7.7p 상승한 100을 기록해 3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을 회복했다.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7.0p 상승한 97.0으로 6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중소기업 지수도 30.9p 상승하며 66개월 만에 최고치인 76.0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전망치는 전년 12월 실적치 대비 9.7p 낮은 82.0을 기록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낮은 것은 건설업체들이 2015년 1월에는 건설경기가 12월보다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